

코로나19에...여자프로농구 결국 시즌 종료

국내 4대 프로리그 중 최초 현재 순위 기준 우리은행 1위 플레이오프 등 상금, 성금 기탁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19-2020시즌을 중도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WKBL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번 시즌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 등 잔여 일정을 모두 종료하기로 했다"며 "9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나머지 일정은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 4대 프로 리그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즌 도중에 종료를 선언한 건 WKBL이 처음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9일 이사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4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프로 리그가 아닌 종목 중에선 SK핸드볼 코리아리그와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가 2월에 시즌을 도중에 마친 전례가 있다.

1998년 출범한 여자프로농구가 시즌 개막 이후 우승팀을 정하지 못하고 도중에 종료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WKBL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적 확산이 갈수록 심해지고,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팀당 30경기를 치르는 2019-2020시즌 정규리그는 9일 부천 하나은행과 인천 신한은행 경기를 끝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전체 6라운드 중 마지막 6라운드가 진행 중이며 팀당 2, 3경기를 남겼다.

WKBL은 "이사회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단들 이견 없이 시즌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신인 드래프트 등에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단된 시점의 순위를 준용 근거로 삼을 계획"이라고 현재 순위가 최종 순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시즌 정규리그 1위는 현재 1위인 아산 우리은행이 된다.

10일부터 24일까지 정규리그를 중단한 뒤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던 연맹은 또 "23일로 예정된 학

교 개학이 미뤄졌고, 체육관 임대와 총선 일정 등도 고려했다"며 "선수들도 최근 2주간 리그가 중단돼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리그 회원사인 6개 구단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한국 대표 금융기관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WKBL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선수 시즌 계약 등이 마무리되는 6월 이후 상황이 허용하면 스포셜한 이벤트를 구상할 계획"이라며 "또 플레이오프 등에 걸려 있던 상금은 선수들 전체 이름으로 코로나19 관련 성금으로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또 연맹은 "앞으로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보완해 어떤 상황에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9일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IOC 화상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IOC 2주연속 집행위 회의 도쿄올림픽 연기 수순 밟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2020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를 고수했다가 역풍을 맞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주 연속 집행위원회를 열기로 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22일(한국시간)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와 일본 스포츠 전문지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IOC는 이번 주에 임시 집행위를 열어 6월 말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최 또는 취소·연기 방안을 논의한다. IOC는 이번 임시 집행위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선수들의 훈련에 끼친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를 임시 집행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IOC는 17~19일 중목별 국제연맹(IF) 대표, IOC 선수위원을 비롯한 전 세계 선수 대표, NOC 대표와 연쇄 화상회의를 열기로 전파 형식으로 집행위를 소집해 일종의 IOC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했다.

집행위는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4개월의 여유가 있으므로 급격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정상 개최 추진에 방점을 찍고 IF 대표, 선수 대표, NOC 대표의 의견 수렴보다는 집행위 원칙 강조와 내부 단속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가 도처에서 쏟아진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브라질올림픽위원회가 IOC에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공식으로 제안한 가운데 노르웨이올림픽위원회, 슬로베니아·콜롬비아 올림픽위원장은 물론 미국육상협회·미국수영연맹, 영국육상연맹 등 올림픽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각 나라 종목 연맹마저 올림픽 연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IOC가 이례적으로 2주 연속 집행위를 여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뉘엿게 인지해서라는 분석이다.

제대로 훈련할 수 없는 각 나라 선수들은 도쿄올림픽 연기 또는 취소와 관련해 IOC가 구체성을 담은 플랜 B를 서둘러 제시하길 바란다.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다" (20일 뉴욕 타임스 인터뷰), '올림픽, 주말 축구 경기처럼 연기 못해' (22일 독일 라디오 방송) 등 갈팡질팡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할 바흐 IOC 위원장이 이번엔 답을 내놓을 차례라는 목소리가 높다.

배구리그 종료·재개 여부 23일 임시이사회서 결정

한국배구연맹(KOVO)이 나흘 만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2019-2020 V리그 조기 종료와 재개 여부를 논의한다.

KOVO와 13개 구단이 "결정을 내릴 때"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터라,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프로배구 13개 구단 단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 회의실에 모인다. '안건'은 나흘 전인 19일에 연 임시 이사회와 같다.

19일 이사회에서 KOVO와 단장들은 '리그를 조기 종료하는 방안, 정규리그는 종료하고 현 순위로 포스트시즌을 치르는 안, 정규리그 잔여 경기만 치르는 방법, 정규리그를 소화하고 포스트시즌을 단축해서 치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내 프로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3월 3일 리그를 중단했다. V리그 조기 종료와 재개를 놓고 각 구단의 상황과 판단이 달라져 3시간여의 논의 속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조원태 KOVO 총재는 "각 구단이 이기적이지 않게 리그 전체를 위해 논의했다"며 "다음 이사회에서는 방향만 잡으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총재가 "각 구단의 의견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리그 조기 종료 혹은 4월 5일 이후 재개 쪽에 무게를 둔다.

실내 스포츠인 배구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받는 종목이다. 일단 4월 5일 전에 경기를 치르는 건 부담스럽다.

KOVO와 각 구단은 체육관 대관 문제와 다음 시즌 준비 등을 고려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4월 15일 전에는 리그를 종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23일 이사회에서는 4월 6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급하게 경기를 치르거나, 리그를 조기 종료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할 전망이다. 리그 조기 종료를 택하면 순위 결정, 자유계약선수(FA) 등록일 문제 등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광주시체육회 방역 활동 김창준(가운데) 광주시체육회장과 임직원이 지난 20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이날 체육회관 배드민턴장, 탁구장, 스쿼시장과 국민생활관 임대 사무실, 각 종목별 훈련장, 검도회관, 전천후테니스장 등을 일제 방역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가슴 쓸어내린 펜싱협회

확진 판정 선수 3명 외 대표팀 42명 모두 '음성'

대표 선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 판정을 받을까 봐 노심초사했던 대한펜싱협회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펜싱협회는 20일 대표팀 선수 조사 결과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여자 에페 대표 선수 3명을 제외하고 42명 모두가 음성 결과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여자 에페 대표팀과 함께 1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돌아온 남자 에페 대표팀,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물론 다른 곳에서 훈련하던 여자 사브르 대표

팀 등 선수, 지도자, 의무 트레이너 등 대표팀 관계자 전원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7~18일 이틀간 울산, 경기도 남양주, 충남 태안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자 에페 대표 선수 3명은 각각 울산대병원, 의정부의료원, 청주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펜싱협회는 같은 속속을 사용하고 함께 훈련하는 단체 종목 특성상 대표팀 내에서 감염 확진자가 증가할까 크게 우려했지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아 한숨을 돌렸다.

펜싱협회는 앞서 이날 오전 최근 국내 여행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판에 휩싸인 여자 에페 대표 선수는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펜싱협회는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돌아와 태안으로 여행 갔다가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표 선수 A 씨는 "자가격리" 2주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펜싱 국가대표 확진자 3명 가운데 광주 선수도 있었다. 광주 서구청 펜싱팀의 B선수는 경기 남양주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1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선수와 동행한 다른 서구청 펜싱팀 선수와 코치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광주 자택에 격리 조치됐으며, 이상 증상이 나올 경우 다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행안내

3월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25일(수) 충북 괴산 산악이엠티 트레킹,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 화동 현대물류앞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4월4일(토)

▲광주금당산악회 4월4일(토) 고흥 복래산및 옥섬, 봉선동 롯데슈퍼앞 07: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정문 07:30, 한국병원 앞 07: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07: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0년 03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405,000,000원 중 금 1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305,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액면금액 10,000원을 1주당 10,000원으로 매입하여 보통주 10,000주를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40,500주를 30,50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본 회사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구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나 구주권 및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3일
두리개발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95
대표이사 이상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80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 피고인 : 박성렬
위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년 3월 17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호산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들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세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공묘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화순군 정동면 신석리 585-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화천사주묘관(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40-27)
7. 안치기간 : 화장 후 60일 10년
8. 신고처 : 임근영(010-8612-3904)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신고서 등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게 누락되어 추가 별관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0년 3월 23일
공고인 임근영

김제 중심지

대지 2,685㎡
건물 446㎡

요촌동 중심상가지대

합필시 공시지가 30억

20억 010-8555-0998
주인 직접

LOTTE CINEMA | 중앙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다크 워터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3관	1917, 세인트 아가타
4관	인비저블맨
5관	인비저블맨, 작은 아씨들
9관	정직한 후보
7관	씨네캐슬 미드나잇 인 파리, 스타이즈 본
8관	씨네캐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작은 아씨들, 비긴 어게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동화 음악회

GAC 기획공연-FOCUS 동화음악회 <책으로 똥을 뚫는 돼지>

4.7(화) 11:00, 14: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엠마뉴엘 체코보라얀 비올린 리사이틀

GAC 기획공연-FOCUS 엠마뉴엘 체코보라얀 비올린 리사이틀

4.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화양연화 : 강남구 초대전

GAC 기획전시 화양연화 : 강남구 초대전

3.27(금) ~ 5.10(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